

다니엘서 - 16번

기호

Jeff Pippenger

2023-12-11

다니엘서 3장을 다루기에 앞서, 그 장을 더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언적 상징을 살펴보겠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들이 등장하는 문맥에 따라 특정한 예언적 상징을 대표하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신다. 1장에서는 이들이 서로 구별 없이 네 명의 뛰어난 인물들로 제시되지만, 장 말미에 이르면 다니엘이 '모든 이상과 꿈을 깨닫는' 은사를 지닌 것으로 밝혀진다.

이 네 소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지혜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다니엘 1:17.

1장에서는 '넷'이라는 상징으로 그들이 온 세상에 있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넷'은 전 세계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모든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고 있다. 1장의 네 걸출한 인물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17절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걸출한 인물 사이에 처음으로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셋과 하나의 결합'이라는 상징을 나타낸다.

"셋과 하나의 결합"의 상징은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 안에서 거듭 발견된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 여러 진리를 나타낸다. 그것은 1798년 '마지막 때'에 시작되어 은혜의 문이 닫힐 때 끝나는 세 천사의 기별의 역사를 나타낸다. 세 기별 모두가 첫째 천사의 운동 속에 대표되었고, 그 운동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넷째 천사가 뒤따른다. 따라서 "셋과 하나의 결합"이다.

어떤 맥락에서는 그것이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운동을 숫자 1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운동을 숫자 3으로 표상하여 결합한 것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삼과 일의 결합"은 "일과 삼의 결합"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상징적인 "삼-일 결합"은 10이 3에 앞서든, 3이 1에 앞서든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는 먼저 세 청년을 보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넷째 분을 본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결박된 채 불타는 풀무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한 세 사람을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왕이여.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나 아무 상함도 없고,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서 3:23-25.

다니엘이 3장의 금 신상 숭배 의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줄, 전적으로 신적인 이유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틀림없이 있다. 그러나 예언적 이유 하나는, 만일 다니엘이 참석했다면 풀무불 속에서의 셋과 하나의 결합이라는 예언적 상징을 깨뜨렸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드온의 경우에는 기드온과 백 명으로 이루어진 세

부대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세 제자와 함께하셨다.

옛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으며 그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마태복음 17:1, 2.

하나와 셋, 혹은 셋과 하나; 그것은 같은 상징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말세의 어떤 예언적 요소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말세는 심판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날들은 1798년에 시작되었으며,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심판이 개시될 것이라는 선포가 있었다. 그리고 심판의 날들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 때에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며, 하나님의 집행 심판이 시작되어 점차 격화되어 은혜의 시기가 완전히 닫히고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임할 때까지 이어진다.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사건에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 세 용사는 기치를 상징한다. 금 신상 봉헌식에는 느부갓네살의 제국을 이루던 모든 민족이 참석했다.

그는 먼 나라들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땅 끝에서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부르시리니, 보라, 그들이 신속하고도 빠르게 올 것이다. 이사야 5:26.

다니엘의 포로 생활의 칠십 년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며,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타난다. 여호야김 때부터 고레스 때까지는 다니엘의 포로 생활의 실제 칠십 년을 나타낸다. 역대하에서 그 칠십 년은 땅이 쉬며 그 안식년을 누릴 기간을 의미한다. 이사야 23장에서 그 칠십 년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화주의의 뿔과 참된 개신교의 뿔이라는 병행하는 역사들도 함께 대표한다. 엘렌 화잇은 그 칠십 년을 교황권의 1,260년 암흑기와 상응시킨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신성한 계획을 완수해 나갈 자유를 누리고 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가 제한되는 고통을 당했다. 복음의 순수한 선포는 금지되었고, 인간의 명령을 감히 거역한 이들에게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 가해졌다. 그 결과, 주님의 위대한 도덕적 포도원은 거의 전적으로 경작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박탈당했다. 오류와 미신의 어둠이 참된 종교에 대한 지식을 말살하려 위협하였다.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길고도 가차 없는 박해의 기간 동안, 포로기 바빌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참으로 포로 상태에 있었다. 선지자와 왕들, 714.

상징적으로 칠십 년이 또한 암흑시대의 1,260년을 가리킨다는 것이 이해되면, 암흑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삼년 반', '사십이 달',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들은 상징적 칠십 년의 의미와 적용을 확장한다.

다니엘서에서 칠십 년은 첫째 기별에 권능이 부여된 때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규정된다. 그 기간은 모든 거룩한 개혁 운동 속에 존재하며, 그리하여 칠십 년은 시간 요소를 강조하기보다 그 기간의 목적을 다루는 다른 진리의 줄기들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말라기는 그 칠십 년의 기간을 언약의 사자가 레위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으로 표상한다. 화이트 자매는 말라기의 레위인 정결을 그리스도의 두 차례 성전 정결과 연관지었다. 그 동일한 기간은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의 때이기도 하다. 또한 그 기간은 늦은 비가 점진적으로 부어지는 기간이다. 같은 기간은 짐승의 우상의 시험의

때이기도 하여 짐승의 표로 이어진다. 그 기간은 또한 예언적 '준비의 날'로,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며, 또한 '안식일의 날'이기도 하다. 그 기간에는 흠어지는 때와 모이는 때가 포함되어 있는데, 둘 다 '일곱 때'의 요소들이다.

다니엘서에서 여호야김은 첫째 기별의 권능 부여를 상징한다. 그의 뒤를 잇는 두 왕과 관련하여, 그는 심판으로 이끌어 가며 결국 심판에서 끝나는 세 천사 가운데 단지 첫째일 뿐이다. 고레스는 일요일 법령의 상징일 뿐 아니라 해방의 '표적'이기도 하다. 다니엘은 '셋과 하나'의 결합을 이루는 요소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내는 네 겹 표상의 일부이기도 하다. 다니엘은 또한 엘리야의 사자를 상징하며, 요한계시록의 요한을 예표하기도 한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을 상징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재판관' 또는 '심판의 하나님'을 뜻하므로, 그는 따라서 심판의 상징이며 또한 라오디게아의 상징이기도 하다. 라오디게아는 '심판받는 백성' 또는 '심판 아래 있는 백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라오디게아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인봉이 풀린 지식을 그들이 거절한 데에 근거한다.

느부갓네살은 미국의 공화주의의 뿔과 참된 개신교의 뿔, 둘 모두의 상징이며, 또한 미국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상징한다.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이르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1798년의 '끝의 때'를, 벨사살이 일요일 법령을 대표함을 알게 된다. 느부갓네살은 징벌의 '일곱 때'가 끝날 때 회심하여 어린양 같은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의 아들은 멸망 직전에 결국 용처럼 말하게 된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에게도, 그 첫 통치자의 예형대로, 신성한 감시자의 선고가 내렸다: '왕이여, ... 네게 말하노니; 나라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다니엘 4:31.” 선지자와 왕, 533.

다니엘서 1장은 1840년 8월 11일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를 나타낸다. 또한 2001년 9월 11일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나타낸다. 또한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기별을 나타내는데, 세 천사의 기별은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역사를 나타내는 두 번째 예언적 상징이기도 하다.

아마도 다니엘서 1장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구성한 예언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예언을 공부하는 이가 숙달해야 할 세 가지 예언적 시험 가운데 첫 번째이다. 다음 시험들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인용했듯이, Early Writings에서 화이트 자매는 한 단락에서 그리스도의 역사 속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지적하고,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밀러파의 역사 속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을 지적한다. 그녀는 그리스도 시대에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밝힌다. 다음 단락은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밀러파의 첫 번째 시험이 윌리엄 밀러였음을 보여 주는데, 화이트 자매는 그가 세레 요한과 엘리야 둘 모두에 의해 예표되었다고 규정한다. 첫 번째 시험의 그 두 증인은 다니엘서 1장이 엘리야의 메시지임을 확증한다. 1장을 거절한다면, 2장과 3장으로부터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

예수와 둘째 천사는 각각의 역사 속에서 세레 요한과 첫째 천사를 뒤따랐다. 예수 뒤에는 십자가에서의 심판이 있었고, 조사심판이 시작될 때 셋째 천사가 도래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겪은 실망은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을 예표한다. 다니엘서 1장은 세레 요한과 윌리엄 밀러로 대표되는 엘리야이지만, 2장과 3장과 분리될 수 없다. 그 장들은 함께 영원한 복음이며, 그것은 언제나 예언적 시험의 세 단계 메시지로서 두 부류의 예배자를 형성하고 이어서 분리한다. 그러므로 그 세 장을 분리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

그러나 설령 우리나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이제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8, 9.

다니엘 1장은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도록 길을 예비하며,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상징한다. 광야는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흠어짐의 시기로 상징된다. 다니엘 1장에서 다니엘은 광야에 있으며, 흠어져 포로가 되어 있다. 1장의 기별은 2장의 기별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상징하는 자들로 여겨지는데, 이는 그들이 아론의 금송아지 위기 때에 모세 편에 충실히 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니엘 3장도 금신상과 관련된 위기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의 '짐승의 우상' 시험에 앞서 미리 정결하게 된 레위인들과 같다. 그 의식에서 느부갓네살은 악단을 마련하고, 두로의 음녀가 노래를 부르며, 배도한 영적 이스라엘은 금 신상 주위에서 음악에 맞춰 엎드려 절한 다음 벌거벗은 채 춤을 춘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책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 책의 봉인을 풀고 계신다. 그분이 그 책에 두신 가장 첫 번째 진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다. 다니엘서의 첫 세 장은 곧 세 천사의 기별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세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진리들은, 그것들이 처음 다니엘서의 첫 세 장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완전해진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것들은 영원한 복음으로 규정되며, 하늘을 날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전해지는 기별임을 드러낸다. 다니엘서의 첫 세 장에는 그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남녀들의 경험이 묘사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상징들을 통해 세 천사의 기별을 나타내는 진리의 외적 전개이다. 영원한 복음과 세 천사 각각의 기별은, 다니엘서 첫 세 장에 나타난 진리의 내적 전개를 통해 완성에 이른다.

처음 세 장은 많은 놀라운 진리들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세 가지 메시지가 식이 시험에 이어 시각적 시험이 있고, 이어 리트머스 시험이 뒤따르는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세 가지 시험을 지칭하는 다른 방식들도 있겠지만, 그런 명칭들은 1장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다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세 장은 하나의 상징으로 함께 인식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고, 우리는 지금 셋째 기별의 선포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 세 기별 모두는 여전히 선포되어야 한다.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그것들을 되풀이해 전하는 일은 지금도 예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다. 우리는 글과 말로 그 선포를 울려 퍼뜨리며, 그 순서와 우리를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끄는 예언들의 적용을 보여 주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없이 셋째는 있을 수 없다. 이 기별들을 우리는 간행물과 강연을 통해 세상에 전하여, 예언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있었던 일들과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선택된 기별, 제2권, 104, 105쪽.

2장과 3장의 실제 역사 사이의 간격이 하루였든, 일주일이었든, 스무 해였든 상관없다. 이 두 장은 세 가지 시험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그의 꿈을 아시고, 그 꿈에 대해 진리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견고한 해석을 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경탄하고 놀라워했다. 그러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2장의 두 번째 시험에 실패했다. 그는 비밀스러운 꿈의 신적 의미를 밝혀 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나타남보다 자기의 교만한 인간적 욕망을 더 높이려 결심했기 때문이다.

3장에서 금 신상을 세우면서 그는 세 번째 시금석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그 시금석 시험을 통과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 세 의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다니엘서의 처음 세 장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세 장은 단순해 보이고 기독교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흔히 사용될 만큼 매우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심오한 세 장을 나타낸다.

다음 글에서는 다니엘서 3장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취한 길에서 드러난 허영과 억압은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될 것이다. 이 시대의 시험은 안식일 준수 문제에서 있을 것이다. 하늘 우주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표, 곧 그분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사이의 표징을 아무것도 아닌 것, 멸시받을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한편 거짓 안식일이 두라 평지의 큰 금 신상이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높여지고 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 안식일을 지키라고 온 세상에 요구할 것이다. 이를 거절하는 모든 이들은 억압적인 법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불법의 비밀이며, 사탄적 세력들의 계략으로, 죄의 사람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다. The Youth's Instructor, 1904년 7월 12일.